

바다위의 식사

쾌적한 분위기의 선상에서 즐기는 달콤한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더 행복합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고요?
KIMA WEEK 2014에서 미리 경험해보세요!
바다에서의 새로운 힐링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KIMA 2014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양레저!

-개막식 ·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무료 해양레포츠체험 신청접수



다가올 KIMA WEEK 2014 축제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축제의 꽃인 무료 해양레포츠체험에 대한 참가접수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

오는 9월 30일, 10시 50분에서 12시까지 진행되는 개막식은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에서 열리며 500여 명의 해외·중앙·지역인사와 관람객들이 개막식을 채울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은 전국 MBC 채널의 생중계를 통해 오프닝 개회 공연과 축사를 비롯하여, 현 CNA Nautica Boat Show 매니저이자 전 ICO-MIA 기술위원장이기도 했던 Lorenzo Pollisardo의 기조연설 등 60분간 개막식 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해양레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자리를 가진다.

참관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무료 해양레포츠체험 접수 역시 지금 진행 중이다.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료 해양레포츠체험은 푸른 가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크루즈 요트체험과 짜릿한 속도감을 선사하는 모터보트 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체험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만 진행된다. 이번 무료 해양레포츠체험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부산국제영화제 예매자들에 한해 별도의 체험신청(10월 2일~5일)도 가능하므로 예매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웹사이트(www.biff.kr)를 방문하길 바란다.



개막식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과 무료해양레포츠체험 모두 KIMA WEEK 201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접수 받고 있는 중이며, 신청기한은 9월 24일까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메인화면 상단 부분에 위치한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자세한 행사내용과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 및 국제컨퍼런스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해양레포츠가 상류계층의 럭셔리 취미생활로 국한되었던 지난날에 비해,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스포츠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치레저문화라는 이미지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KIMA WEEK 2014 축제에 참가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의 매력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BOAT SHOW NOW

영화와 바다의 화려한 조합, 마린 비프존(Marine BIFF Zone)

-BIFF와 KIMAWEEK 2014의 연계 행사 진행



KIMA WEEK 2014 축제기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하여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어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게 된다. KIMA WEEK 2014의 열기로 뜨거울 'The Bay 101' 마리아에서 운영될 예정인 마린 비프존(Marine BIFF Zone)이 바로 그것.

마린 비프존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준 국내외 영화 관계자 및 게스트들에게 오픈되는 요트 체험 행사로, 요보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상전시장이 마련된다.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100여 명의 영화 관계자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최소 8명에서 최대 29이 탈 수 있는 10여 개의 다양한 요트가 해상에서 기다리고 있다.

마린 비프존은 부산국제영화제와 KIMA WEEK 2014의 연계로 문화예술과 해양레저의 융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해양문화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레저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으로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해양레저지역 -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해수욕장, 송도

[부산] 송도 편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나폴리, 송도는 1910년 일제 강점기 때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이다. 송도는 파도가 크지 않고 해안가 부근에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잔잔한 물살에 활동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해안가를 1km 이상 벗어나면 바람이 강해서 윈드서핑이나 딩기요트와 같이 바람을 이용한 해양레포츠들 역시 체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해안가를 벗어난 바깥쪽에는 물이 맑아 물고기들까지 구경할 수 있어 이모저모 다양한 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다. 작은 규모에 비해 해양경찰과 119가 주시하고 있어 안전하며 성수기에는 송도 초등학교 운동장을 공용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어 가족 단위로 놀러가기엔 그만인 명소이다.

카약

- 카약은 송도 해수욕장을 찾는 레저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다.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잔잔하여 안전하고, 바다와 모래사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이동이 편하다. 또한 바닷속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깨끗하며 다른 지역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래프팅보트

- 송도에는 총 10대의 래프팅보트가 있으며, 한 대에 10~11명이 탑승할 수 있다. 단결력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단체 단위의 탑승객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오는 관광객들은 매년 1,500명 정도에 육박한다.



■ Check Point

☞ 송도 해양레저센터

- 송도에서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려면 이곳을 꼭 방문해야 한다. 카약, 윈드서핑, 딩기요트, 래프팅 등 다양한 해양레저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에서는 유일하게 바나나보트, 팅크보트와 같은 무동력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장비 대여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을 위한 강습과 투어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나 기업 등 단체로 오는 경우 그에 맞는 단체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 송도 바다축제

- 매년 8월에 열리는 송도 해수욕장의 여름축제이다. 부산 출신의 가수, 고(故) 현인 선생을 기리면서 시작된 '현인가요제'는 송도 바다축제에서 놓칠 수 없는 행사이다. 축제기간에는 '송도 바다미술축제' 등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해양관광시대를 열다! '더 베이(The Bay)101'

해마다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연간 1,200건 이상의 행사와 전시회가 열리는 곳, 바로 부산 해양관광의 대표거점인 해운대다. 최근 해운대에는 '더 베이(The Bay) 101'이라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문을 열면서 이전에 없던 역동을 일으키고 있다.

동백섬 어귀에 자리잡은 'The Bay 101'은 부산권 최초의 상업적 해양레저기지로 민간자본 350억 원이 투입되어 완성한 퍼블릭 마리나이다. 'The Bay 101'은 누구나 한번쯤 찾고 싶도록 즐길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최고의 해양레저 콘텐츠를 갖춘 마리나시설을 지향하며, 크게 클럽 101과 갤러리 101 그리고 외식공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클럽 101은 50여 척의 요트·보트·제트스키 등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함께 세미나와 컨퍼런스,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는 연회시설 그리고 식당 등을 갖춘 클럽하우스다. 이곳에서라면 국내 최대 규모로 128명이 동시 승선 가능한 76피트 카타마란 요트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최고시속 100km의 초고속 제트보트, 30여 명이 함께 동백섬 앞바다의 맑은 바닷속을 즐길 수 있는 반 잠수정 등 그동안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해양레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한사람만을 위한 요트가 아닌 누구나 고품격 요팅을 즐길 수 있는 퍼블릭마리나라는 점이 해양레저 저변을 넓혀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클럽 101 외에도 즐길거리는 많다. 갤러리 101은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트렌디한 제품들을 부산에서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복합전시문화공간이다. 바다와 아름다운 도심 야경을 바라보며 맛있는 식사와 차,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야외테라스는 그 낭만과 운치 덕분에 떠오르는 데이트코스 손꼽히고 있다.

해양을 기반으로 해양레포츠와 문화, 디자인, 라이프스타일까지 연계하여 해양레저의 영역을 확장한 'The Bay 101'이 지금 해양관광의 핫 플레이스로서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KIMA WEEK 2014는 행사를 즐기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최근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를 받기 원하시면 komalnet@naver.com로 수신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뉴스레터' 를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거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komalnet@naver.com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KIMA WEEK 2014 사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TEL : 82.51.760.1143 FAX : 82.51.760.1134

Copyright (c) 2014 KIMA WEEK 2013. All Rights Reserved